

# “e스포츠로 하나된 모습, 눈물나게 감동 받았어요”

## 제1회 장애인e스포츠 부모회 대회

카트라이더·볼링 15명 ‘출격’  
선수 부모가 감독·코치 역할  
“두려움 해소 동기부여 되길”

“대회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꼭 우승할 거예요!”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겠다는 박준우(8)군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간 나이 제한 등으로 e스포츠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박군은 최근 광주e스포츠교육원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e스포츠 부모회 대회’가 인생 첫 대회다.

이번 대회는 지난 4월 출범한 장애인e스포츠단 ‘무등’ 등 광주 장애인e스포츠 선수 부모들이 삼삼오오 자금을 모아 개최했다.

공식 행사가 없는 비시즌을 맞아 △선수단 동기부여 △대회 체합·두려움 완화 △선수단 1군·2군 편성 △장애인e스포츠 지역저변 확대 등을 목표로 했다. 호남대 e스포츠교육원,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대한·광주장애인e스포츠연맹이 후원했다.

대회 종목인 닌텐도 스위치 볼링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는 광주·전남 지역 e스포츠 선수 15명이 참여했다. 선수들은 수개월간 교육기관·집 등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지역 e스포츠 선수들은 지난 6월부터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e스포츠교육원에서 매주 2회 리그오브레



‘제1회 장애인e스포츠 부모회 대회’가 지난 20일 광주e스포츠교육원에서 열려 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전드·닌텐도·카트라이더·피파온라인 종목의 e스포츠 교육을 받고 있다.

카트라이더·볼링 종목에 나선 백찬주 선수는 “대회를 위해 전날까지 연습 시간 짝 채워 준비했다”며 “말리(타 지역) 가지 않고 광주에서 대회를 좋다. 평소 대회에 못 나오던 사람들도 많이 왔다. 반갑긴 하지만 다 겪고 1등을 차지하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0월부터 아들과 e스포츠 훈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모(43)씨는 “서구 체육회 관계자를 통해 e스포츠라는 걸 알게 됐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 ‘진작 올 걸’하고 후회했다”며 “이번 대회가 아들이 겪는 인생 첫 ‘경쟁’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회 심판·코치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부모들이 맡았다. 이들은 보호자로 따라 다녀야 하는 특성상 자녀들의 배움에 대

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고 결국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을 통해 최근 ‘e스포츠 감독·심판 자격증’을 땀다. 부모회는 이 대회를 발판으로 차후 ‘광주·전남 장애인e스포츠 아카데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영 부모회 대표는 “다 지역의 경우 학교·지자체 등에서 자체 장애인e스포츠 행사를 많이 연다. 광주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 부모들이 나서게 됐다”며 “모든 규칙과 환경을 실제 메이저 대회와 같게 준비



지난 20일 광주 서구 광주e스포츠교육원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e스포츠 부모회 대회’에서 수상자들이 상패를 들고 있다.

했다. 그간 나이·실력 등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로 대회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총괄·자문을 맡았던 최경환 동신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대한장애인e스포츠협회 이사)는 “부모들이 나서서 행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라며 “e스포츠는 장애인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받돋움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광주가 이 사례를 활용해 ‘지역 장애인e스포츠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 우승은 닌텐도 스위치 볼링 서하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백찬주 선수가 차지했다. 메달·상품 수여는 최경환 교수가 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광주 보육교사 62% “연차휴가 자유롭게 못 쓴다”

## 광주노동센터 실태조사

‘대체교사 부족’이 원인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광주 보육교사 10명 중 6명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광주노동센터가 최근 발표한 ‘광

주 보육교사 노동자 휴가사용 등에 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가 연차휴가(긴급돌봄 포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를 신청했으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해서’가 50%로 가장 많았고 △‘원장의 눈치가 보여서’ 27% △‘원장이 대체교사를 신청해 주지 않아서’ 11% △‘기타’ 11%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1%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인력 지원 여부에는 보육교사노동자 60%가 연차휴가 사용 시 대체교사 인력이 지원된다고 응답했다. 40%는 인력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인력 지원 방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이 59%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보육 보조교사,연장

보육교사 종일근무’ 18% △‘자체적으로 합반, 분반’ 10% △‘대체교사 직접채용’ 8% △‘대체인력 없음’ 5% 순이었다.

설문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해 98%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눈치 안 보고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70%)’이 가장 많았다. ‘꼭 필요하다(11%)’, ‘인력 부족(11%)’, ‘복지향상(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노동센터 관계자는 “광주시 6000여명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

무하고 있다. 그나마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있으나 파견인력이 부족해 수요 대비 지원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이 곧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보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휴가권과 건강권 보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체교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는 지난 11~14일 온라인 조사 설문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623명이 참여했다.

강주비 기자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